

복지관 소식

복지관 운영재개 사업소개

홍천군노인복지관 5월 어버이날 이모저모

홍천군역도연맹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22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복지관은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와 홍천군역도연맹과 함께하는 특식제공 두 가지 행사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함을 전하였다.

5월 6일(금) 홍천군노인복지관 수라터에서는 홍천군역도연맹(회장 김범준)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홍천군역도연맹 후원으로 200여명 어르신에게 추어탕 및 절편(2말), 홍천내고향마트 방울토마토(4박스) 후원으로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였다.

홍천군역도연맹 김범준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드셨을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서로 만나 웃고 즐기며 다시 활기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우양재단 지원사업 '전자레인지는 사랑을 싣고' 전자레인지 전달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우양재단(이사장 최종문)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어르신 주방 조리기구 교체 지원사업 '전자레인지는 사랑을 싣고' 사업에 선정되었다.

'전자레인지'는 사랑을 싣고 사업은 전자레인지 없는 가정, 노후된 전자레인지 교체 등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전자레인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전자레인지가 없거나 노후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10명의 어르신이 선정되어 전달하였다.

또한, 5월 3일(화)~6일(금) 찾아가는 어버이날 행사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사례관리 대상자 800명에게 담당자 및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카네이션 및 지역사회 손길로 꾸러진 감사물품 전달하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원의 힘 후원 모임 『5월 가정의 달 맞이, 봄바람 휘날리며~, 아삭아삭 봄김치 나눔행사』



홍천군노인복지관 만원의 힘 후원모임(회장 송의순)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3일(화) 서면, 내면을 포함한 10개 읍면 지역의 홀몸어르신 100명에게 『봄바람 휘날리며~, 아삭아삭 봄김치 나눔행사』로 열무김치 250kg, 계란 1,000개, 즉석식품 300개, 국수 100개를 후원하였다.

만원의 힘 송의순 회장은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주시고, 봄을 맞이하여 항상 힘차고 건강하시기를 희망한다”며 후원자 217명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송의순 회장을 비롯한 만원의 힘 임원진은 직접 방문을 요청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 체크와 말벗 진행으로 어르신과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재생자원 활용 프로젝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소원을 말해봐> 나눔행사 진행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보살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직원과 이용회원이 한 뜻이 되어 헌 냅비나 캔,

자전거 등 고철을 팔아 모은 수익금 200만원으로 홍천군 지역의 홀몸어르신 20명에 소원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전달해 드리는 나눔 행사를 5월 3일(수)~5월 11일(수)까지 진행하였다.

두촌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용회원께서는 두 달간 모아진 낡은 경운기와 음료 캔 등을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모아 주셨고, 두촌면에 계시는 이용회원께서는 못쓰고 방치되어 있던 농자재 파이프도 모으셔서 좋은 일에 뜻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며 적극적으로 복지관에 전달해 주셨다.

5월 11일(수) 나눔 행사 마지막 날로 난방유를 지원 받으신 오○○ 어르신께서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손이 시리게 쌀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을 조금씩 아껴 쓰고 있었는데,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였다.”

노년사회화교육 개강



5월 9일(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휴관상태에 있던 복지관이 2년 만에 정상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랑의 달팽이 '2022 강원지역 저소득 취약노인보청기 지원사업'



홍천군노인복지관은 5월 10일(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달팽이와 함께하는 2022 '강원지역 저소득 취약노인 보청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명에게 보청기 지원을 시작하였다.

신한은행 후원 '밀박스(Meal Box)' 전달



홍천군노인복지관은 5월 17일(화)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밀박스(Meal Box)'를 받아 우리 가까운 이웃들 21명에게 전달하였다.

'밀박스(Meal Box)'는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락 김, 카레, 짜장, 죽, 곰탕, 삼계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협회장기 탁구대회 단체전 최종 우승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5월 20일(금)~22일(일)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우승의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홍천군노인복지관 탁구팀은 단체전을 포함하여 복식 금메달, 단식 동메달 등 총 5개의 상을 차지하였다.

CONTENTS



02 - 베이비붐 세대의 삶

03 - 홍천 귀농·귀촌의 참맛

04 - 홍천읍 행복 나눔 이야기

04 - 시사경제

05 - 홍천사과와인

06 - 단체소식·의료제도

07 - 인생칼럼·생활칼럼

08 - 공작산 수타사 풍경 스케치

08 - 평생 학습



베이비붐 세대의 회상

베이비붐 세대를 어떤 특정한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폭증했다는 것 말고 다른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현상들이 있을까?

한 인간의 삶은 집단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개별적이다. 따라서 한 인간이 속한 세대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이 공통분모를 베이비 부머들의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A씨의 회상

베이비 부머 A씨(67세)는 대가족인 가정에 태어났다. 증조모와 조부모, 아버지의 결혼한 형제들과 미혼인 삼촌과 고모들, 그리고 고만고만한 형제와 4촌들과 함께 살았다. 20명이 넘는 가족이 한 집에서 살았다. 아이 울음소리와 전방지축으로 집안을 뛰어 다니는 4촌들의 떠드는 소리가 늘 가득했다. 어른들은 각자의 역할에 바빴고 아이들은 알아서 크는 것처럼 커갔다. 삼촌과 고모들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고 4촌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대가족은 해체되었다. 그래도 A씨의 가족은 10명이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8개 혹은 그 이상의 도시락을 싸야 했다.

동네에도 학교에도 길거리에도 또래 아이들이 넘쳐났다. 친척들에는 몇 달 심지어는 며칠 차이로 형·동생이 갈리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저녁때가 되면 밥술을 뜨는 등 마는 등 하고 몰려나온 아이들이 패거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뒷동네 아랫동네 아이들과 무슨 전쟁이라도 하듯 돌맹이 수류탄을 던지며 밤이 늦도록 싸웠다. 집집마다 아이들을 찾아 나선 엄마와 형제들이 '아무개야' 불러대는 외침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다.

A씨는 제법 공부를 잘했다. 일류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모는 새벽에 그리고 방과 후에 과외공부를 보냈다. A씨는 잘 사는 방법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임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며 좋은 중학교에 가기 위하여 밤낮없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했다. 이제 겨우 11살, 12살 어린 아이가 아닌가!

A씨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1차 입시에 낙방했다. 2차라도 가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재수를 강권했다. 어느 중학교를 가느냐가 일생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분들이다. 그는 공부하기에 지쳤지만 재수할 수밖에 없었다.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던 중에 중학교 무시험입시제가 발표되었다. 모든 수고와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 소위 뺑뺑이로 중학교가 배정되는 제도였다. 부모님

의 한숨소리는 땅이 꺼질 듯했다. A씨는 집 근처의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재기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A씨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한때 수재라고 불렸던 A씨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났다. 물론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당시의 사회는 어린 시절부터 갈라놓기 시작했다. A씨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지금 10년 가까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다. 그는 중학교 입학의 실패가 자신의 인생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아직까지도 아쉬워하고 있다.

B씨의 회상

베이비 부머 B씨(66세)는 서울 변두리의 가난한 집 큰아들로 태어났다. 어차피 다섯 명의 자녀를 모두 교육시키기에는 벽산 살림이었다.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까나 하는 B씨에게 몰아주기로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터였다. 가족의 생존이 큰아들 하나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사명감으로 책상머리에서 두 눈을 밝혔다. 그는 가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소위 일류대학 잘 나가는 학과에 합격하였다. 그의 앞길은 훤히 열려 있었다.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되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같은 학과 선배를 따라 야학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 야학은 그냥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는 야학이 아니었다. 노동 청소년들을 의식화시키는 소위 노동 야학이었다. B씨는 노동 청소년들을 만나고 가르치면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섰고 독재타도를 외치는 학생데모를 주동했다. 그는 정보부와 경찰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고 결국 강제퇴학 되어 군대에 징집되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몸져누웠다.

B씨는 제대 후 노동현장에 뛰어 들었다. 야학을 계속하며 노동자들을 가르쳤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사용자에게 대항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모를

선동했다. 그는 그 바람에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며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해고당하기를 거듭했다. 그러다 프레스에 오른손목이 잘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었다. 지금 그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C씨의 회고

베이비 부머 C씨(67세)는 중산층 가정에서 3남 1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큰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이름 있는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원이 되었다. 안정된 직장이고 별 사고만 없다면 평생 다닐 수 있었다. 은행업무는 은행문이 닫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예적금을 유지해야 했고 거래처들을 찾아 다니야 했다.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날마다 계속되었다. 항상 깨끗한 정장을 입고는 있었지만 편하게 하는 일은 아니었다. 매일 매달 실적에 가슴 졸이며 살았다. 승진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일해서 지점장이 되었다. 남들은 선망의 눈초리로 보지만 숨 막히는 나날이었다.

그는 빨리 늙어갔다. 그러다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 아이들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겨우 집 한 채 유지하고 있다.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도시에서 살기에는 빠듯하다. 뒷방 노인으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애완견과 경쟁하는 신세가 되어 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관통하는 물줄기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이라는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단일한 가치체계에 그들을 가둘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획일적이고 군대화된 교육, 절대가치 반공, 모든 것의 희생 위에 추진된 조국근대화, 민족중흥과 강요된 애국심, 유신과 5공으로 이어지는 독재, 저항운동과 5.18 등 민주항쟁, 이러한 키워드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베이비붐 세대를 규격화하고 정형화하는 동인이 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공유하는 의미

위에서 베이비 부머들의 실제 살아온 과정을 3명의 인물로부터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베이비 부머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세대이든 개개인의 삶은 고유하다. 베이비 부머의 삶 또한 개별적이다. 9년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시대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게 삶의 자극과 윤희유가 될 것이다.

홍천 귀농·귀촌의 참 맛

뜯고 캐는 임벌, 인류최초 산업이자 우리 미래산업



◇ 2019년 홍천군임업후계자 임업장비(우드그랩) 정비 및 안전교육, 양봉 체험 및 교육 참가자들.

홍천 임업 후계자에게 묻는다

“임업이란 무엇일까요?”

“임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막상 임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임업’의 사전적 의미는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이다. 또한,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또한, 숲이나 산림에서 목재를 벌채하거나 버섯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선사시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전부터 인간은 자연에서 열매 또는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음식으로 섭취함으로써 우리 식량으로 대신했다.

따라서 임업은 인류 최초의 산업 중의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며칠 전 4월 23일 홍천 집 뒷산에서 요즘 한참 제철 나물인 두릅, 고사리, 취나물이 나를 유혹하여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 겸 식자재 수확을 위해 뒷산에 오르니 연둣빛 나무들과 예쁜 야생화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나무들과 인사하며 잠깐 동안 나물을 채취했는데 벌써 한 바구니 가득 넘었다. 먹거리가 풍성해지니 왠지 부자가 된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이처럼 숲은 우리에게 멋진 경치와 맑은 공기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를 아낌없이 제공한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TV에서 ‘숲에서 산나물을 캐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제목의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에서 나물,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다면 모두 불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만약 이를 어겨 적발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대단히 무겁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업 후계자의 말에 따르면 개인 사유지 관리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지만, 국유림 또는 산의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기관이 그냥 묵인방치 하는 형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 산이나 들어가서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나 역시 주인을 모르는 마을 뒷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한 것이라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다음은 홍천의 임업 후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처음 대하는 임업 후계자의 인터뷰라 설렘으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건장한 체격에 호남형이며 차분하게 인터뷰를 응해 주는 거에 산을 사랑하는 분은 뭔가 다르고 여유로워 보였다.

기자 : 임업 후계자는 언제 되셨고 직책은 무엇이었나요?

취재원 : 젊어서부터 생각했고 2012년에 후계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부터 임업후계자협회 강원도지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자 : 임업 후계자가 된 계기와 동기, 후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재원 : 어려서 때부터 부모님께서 심고 가꾸어 오신 2만 평의 산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 산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했는데 형님이나 동생은 공직에 근무 중이라 자영업하는 내가 관리하며 만 55세 미만에 시작하게 돼야 하기에 임업 후계자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잘하셨습니다. 임야의 면적과 현재 심은 작물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산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취재원 : 임야 15.5ha 4만 7,000평. 임산물 재배면적

5,000평이며, 산나물 여러 종류와 산돌배 등을 관리 중이며, 산 활용가치로 사람의 휴식공간으로 변신 준비 중입니다.

기자 : 좋은 생각이네요. 홍천에서 임업인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바라는 내용은 뭔가요?

취재원 : 지금까지 우리는 산을 바라보고 보호하는 데만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위해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산과 ‘숲에서 씬’을 할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자 : 꼭 산에서 씬을 갖고 싶네요. 추가로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취재원 :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산림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림 선진국들과 산림 경영에 대한 경험 공유와 관련 기술 접목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아가고 경제성만이 아닌 숲의 가치에서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임업 후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임업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산림은 목재 등의 자원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주며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과 맛있는 산나물, 그리고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약초 등을 제공해주고, 관광 및 휴양지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한번 훼손되거나 파괴된 산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수십 년에 달하는 생육 기간이 필요하므로 무계획적인 벌채와 이로 인한 기상재해, 동물이나 병충해에 의한 훼손, 산불 등으로부터 산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임업 후계자를 통해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홍천읍 행복 나눔 이야기

홍천군여성단체 합심 사랑·나눔 실천

**최근 홍천 꽃피공원서 사랑나눔바자회 개최
회원들 직접 담근 김치·홍천산 봄나물 인기
수익금 지역여성발전기금·요양시설 물품 구입**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화자)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천읍 꽃피공원에서 처음으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홍천군여협 소속 한국부인회, 미용사협회, 소비자모임, 여성의용소방대, 고향주부, 여성농업인, 심정문화교류회, 농가주부,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11개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홍천군여협은 바자회 붐을 위해 사전에 지역 내 기관 단체의 도움을 받아 행사장에서 사용가능한 티켓 2,000장을 판매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민들의 이동과 모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날 행사는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떤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바자회장에서 질 좋고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홍천지역에서 심고 수확한 농산물로 만든 들기름, 홍천사과즙, 명이나물 장아찌 등이 눈길을 사로잡



◇ 행사장의 이모저모



았다. 또 제철 봄나물 명이나물과 곰취나물도 판매되어 바자회를 찾은 주민들의 식탁에 봄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홍천군여협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는 전체 23개 품목 중에서 단연 인기품목이었다.

바자회장에서 김치를 구입한 한 주민은 “홍천산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김치를 이렇게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수익금도 좋은 일에 쓰이게 된다고 하니 현명한 소비를 한 것 같다”며 바자회 칭찬을 아낌없이 했다.

또 방문객들의 걸음을 멈춘 것은 천연염색한 스카프였다. 환절기 목을 감싸 보호할 수도 있고, 다가올 여름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에 충분한 천연염색 스카프가

초여름 바람에 하늘거리며 마치 바자회를 축하하는 장식 같았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홍천군여성발전기금으로 또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화자 회장은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가 역대 처음으로 개최하는 큰 행사라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자기 일처럼 애써주신 모든 회원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지역 내 기관단체장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시사경제

영국의 자본과 금융시장 발달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금융 패권을 갖기 전 금융의 허브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어떻게 유럽 곧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되었을까. 주지하다시피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아프리카, 동남아, 미 대륙까지 교역 지역을 넓히려 애쓰고 있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열강들의 세계 식민지 개척에 합류하였다. 유럽의 패권국들을 제치고 영국이 금융을 지배한 내력에 대해 살펴보자.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교역의 중심은 곧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1608년에는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생겼으며 이듬해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금융을 컨트롤했던 주요 그룹은 금융에 밝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금융시스템은 유럽의 전역 특히 프랑스와 영국으로 전파되었고 영국은 1694년 왕실의 주식회사 형태인 민간 특허은행으로 영란은행(The Bank of England)을 세우게 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 영란은행(英蘭銀行)이다. 명예혁명 이후 집권한 영국의 윌리엄 3세는 내전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왕실 재정이 고갈되었는데 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은행은 유대인 상인으로부터 당시 12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되었고 왕실로부터 발권권한을 허가받았다. 즉 지금의 중앙은행격이었다. 한동안 유대인들이 소유하던 사설은행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 1946년에는 국유화되었다.

금융의 발달은 교역의 발달과 그 맥을 같이한다. 네덜란드가 금융에 앞서 있었던 이유는 동인도 회사를 통한 교역이 발달함으로써 투자하려는 다수의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서 출발하였다. 사실 영국은 1600년에 인도에 동인도회사

를 설립하고 동양 무역의 절대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시초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보다 설립이 빨랐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자국의 동인도회사 설립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해를 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무역과 경쟁을 통한 독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영국과 차이가 있다. 영국은 이런 면에서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와 힘든 경쟁을 하였다. 이러한 교역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1657년 크롬웰의 동인도회사에 대한 시각이었다. 크롬웰은 네덜란드 회사와의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새로이 동인도회사에 특허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왕실로부터 받은 칙허가 아닌 의회로부터 받은 특허권이었다. 이를 통해 주식회사로 재편되고 현지 세력에 대한 교전, 선전포고, 강화 등 외교 및 군사상의 권리까지 부여하여 바야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바탕이 되었다 할 수 있다.

17세기 말에는 동인도회사의 무역독점에 반발한 중소상인들이 왕실과 의회에 지속적으로 압박과 로비를 통하여 무역특허를 받아내고 이들의 연합체인 영국회사(The English Company)를 설립하게 되었다. 18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국이 인도무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과 공급을 독점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의 금융시스템을 도입한 영국은 1717년 금본위제를 채택하여 비록 종이로 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화폐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기반이 되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절대 왕정과 달리 영국의 의회 발달은 그 감시 기능으로 일반인이 정부의 채권을 사더라도 그것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영국의 금융 발달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로스차일드(Nathan, Meyer, Rothchild)가는 프랑

크푸르트에서 대대로 상업 및 환전상을 하던 유대인 가문이었다. 1799년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자금을 대고 막대한 이윤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 유럽의 각국에 자금을 대고 권리를 얻으면서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재벌이 되었다. 그가 유럽의 경계를 장악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한 것은 런던을 중심으로 하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의 나폴리,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다섯 아들이 유기적으로 금융망을 형성한 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모든 돈이 런던을 거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겠다.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이 1830년 무렵에는 그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데, 떠오르는 태양 미국의 존재를 알아차렸기 때문일까.

자본 시장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흥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이 발달하고 나라가 융성하는지, 나라가 융성해지면서 금융 또한 발전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지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관계만큼이나 설명하기 어렵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프랑스의 금융체제가 왕정으로 인해 자율성이 제한되고 금융에 대한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면 영국은 의회제도의 발달로 그 견제 기능 때문에 비교적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비록 남해회사의 거품도 있었지만 네덜란드의 툴립 거품이나 프랑스의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회사 만큼의 거품은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시민 사회의 발달, 의회의 견제기능이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찍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내다본 대로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간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지역소식

홍천사과와인

“달콤한 희망과 꿈 상징, 홍천사과와인으로 건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경축축하연에 홍천산 사과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라이트'가 선보여 화제다.

취임식 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축하연이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에 홍천산 사과 와인이 건배주로 등장했다.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라이트는 홍천사과를 사용해 국내 최초 샤프마 방식으로 만든 애플와인 샴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잔을 높이 들고 “은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 일동은 “위하여”로 화답했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홍천 등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특색있는 전통주로 건배주를 선별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풀 같이 달콤한 희망과 꿈을 선사해 주기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 입상주인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라이트가 대통령 취임축하연 건배주로 선정되어 홍천을 알리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후 첫 방문지로 용산대통령 집무실 인근 경로당을 택했다. 어르신들은 새 대통령을 환호했고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동선은 노인일자리 노인건강 노인복지에 관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취임사에서 다짐했다.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홍천군내 어르신 관련단체에

서도 기대가 크다.

이형주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은 “새 정부 5년 동안 노인들은 우대정책 확대 기대감과 함께,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노인들도 최선을 다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순 노인일자리전담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직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르신 일자리정책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증대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대통령 취임식 직후 경로당 우선 방문 어르신 존중과 우대정책 기대감 키워



이규대 홍천사과연구회장은 “홍천사과의 품질이 인정되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홍천농업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천산 사과 와인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가 굴지의 회사 상품이 아니고 한 귀농인의 작품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준다.

'너브내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제조회사는 '샤또 나드리'인데 이 회사 대표는 임광수 씨이고 전 회사원은 임광수 대표와 배우자 둘 뿐인 가족회사이다.

“홍천산 사과 와인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로 선정되어 홍천 사과가 널리 소개된 계기가 된 것이 기쁘

다.”는 임광수 대표는 요즘 포도나무 손질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임광수 씨가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 결심을 하고 부부가 함께 홍천군 서면 반곡리에 정착한지 20년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배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 농사로 넓혔는데 지금은 포도 농사가 주업이다. 5년 정도 농사 후 포도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자 관로를 걱정하다가 홍천농업기술센터의 협력을 받아 포도 와인을 생산하게 된 것이 어느덧 14년째라고 한다.

포도 와인 생산으로 와인 제조의 노하우가 축적될 무렵 홍천지역에서도 사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일교차가 심한 영향으로 홍천 사과가 달고 맛있다는 평을 얻으며 '옛날에는 사과하면 대구 사과였는데 지금은 홍천 사과'라며 홍천 사과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농가에서 사과나무를 심었고 생산량이 넘쳐났다. 임광수 씨는 주변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납품받았다.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임광수 대표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로 선정된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가 주문한 것으로 알고 샘플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로 납품된다는 것은 나중에 홍천군청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 주 뉴스가 나간 후 많은 양의 주문이 밀어닥쳐 무척 바빴다.”는 임광수 씨는 “직원 없이 부부가 년 간 15,000병을 수제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회사를 확장하거나 생산량 늘림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겸손해 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최승업 씨는 “홍천을 찾아 귀농한 임광수 씨 부부가 성공해서 축하를 보낸다.”며 “홍천군은 귀농·귀촌 귀향인들을 환영하며 홍천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임광수 씨의 넓은 포도밭에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포도넝쿨이 무럭무럭 자라며 꽃을 피우고 있다.

“홍천에 귀농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함께 일 해주는 아내가 항상 고맙다. 혼자서는 해내기 어렵겠지만 함께 하니 일이 수월하고 늘 행복하다.”고 했다.

허남영 기자(hny1985@naver.com)

Wine Story

강원도 홍천산 포도로 제조한 와인 너브내

홍천을 한자로 쓰면 洪川. 넓을 홍, 내 천. 순우리말로 풀어 쓰면 너브내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집 앞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에 이만한 이름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1)너브내 레드와인



(2)너브내 화이트와인



(3)너브내 로제와인

(1) 너브내 레드

안토시아닌 풍부하고 바디감이 있는 정통 레드와인으로 육류 계통의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종류·dry, sweet | 품종: 머루(블랙아이, 블랙션)

(2) 너브내 화이트

과일향이 풍부한 가벼운 타입의 와인으로 여러분을 할기로운 공속의 정원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종류·dry, sweet | 품종: 레드드림, 청향

(3) 너브내 로제

씨가 없는 3배체 적포도로 양조하여 황홀한 장미빛 와인입니다. 달콤한 과일향과 장미빛의 와인색은 여인의불타는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종류·sweet | 품종: 블랙스타

야시대1리 새 경로당 준공...더 나은 어르신 쉼터 만들다

화촌면 행인교 경로당 준공 개소 도로 확·포장으로 없어졌던 경로당 생겨 건물 내 턱 없애 어르신 이용 편리

야시대1리 '행인교 경로당' 준공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1리 '행인교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4월 29일 야시대1리 1255번지에서 열렸다.

행인교 경로당은 과거 협소하고 오래되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있어오다가 2021년 군도 10호선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까지 되었다. 이후 마을 어르신들은 천막으로 만든 경로당을 이용하다가 한 주민이 토지를 매수해 기부하면서 새로 경로당을 짓게 되었다.

경로당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시대1리 주민의 숙원 사업인 경로당 설치에 많은 지원이 있었다. 총 공사비 425,469,000원을 지원받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인 BF인증까지 취득해 경로당 건물 출입구부터 화장실, 방 등 모든 곳에 턱 없애 연세가 많아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게 되었다.

거리두기 해제 경로당 이용 가능

홍천군 10개 읍·면 내 경로당은 총 205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1만 3,000여 명이 함께 한다. 경로당은 좋은 일은 곱으로 나누고 힘든 일은 반으로 거들며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 대나무숲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경로당 이용이 금지되어 어르신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했었다.

그래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거리두기도 해제되는 시기에 화촌면 야시대1리 행인교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져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제 다시 어르신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어 홍천 7만주민들도 행인교 경로당 준공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경로당 준공까지 아낌없는 지원 감사

이날 행인교 경로당 준공식은 허은숙 화촌면장, 권혁



일 군 행정국장, 김기원 행복나눔과장, 공군운 군의장, 이호열 군의원, 신도현 도의원, 이규설 홍천군 변영회장, 이형주 홍천군 노인회장 등 여러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야시대1리 최계복 노인회장은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군수님과 행복나눔과장님, 화촌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노인복지 시설로 잘 운영·관리해 어르신들의 즐거운 삶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홍천군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기를 잘 극복했고 앞으로도 각자의 터전에서 활기차게 일상을 영위할 것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휴식을 갖고 홍천군 노인일자리 사업을 잘 활용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본인의 재능으로 사회봉사를 하면서 건강하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1리는 2022년 4월 29일 10시 30분 야시대로 210 번길 11에 어르신들의 쉼터의 공간으로 행인교 경로당을 야시대1리 1255번지에 40평 규모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행복한 쉼터 행인교

홍천군의 노인 일자리를 잘 활용하면 어르신들도 나눌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직업과 본인만의 재능 또한 사회에 봉사하며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상 건강하신 하루 하루를 지내셨으면 바랍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 사진봉사자 : 김홍근 • 영정사진 촬영인원 : 33명
• 주엄치리 경로당(화촌면) : 회장 이수환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병원은 절대 퇴원 시켜줄 수 없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 놓을 수 있다.

-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한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1	2	3	4
등록기관 방문 작성의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등록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1:1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후, 안내에 따라 작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가 있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7년여 기다림에 허물을 벗고 우화하여 짧은 7일 남짓 생존하는 매미들이 구애 세레나데를 실록의 숲에서 합창하더니,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장독대 주변에는 맨드라미가 붉은 면류관을 쓰고 길가에는 목이 긴 코스모스가 가을을 몰고 오는 하늬바람에 흔들리고, 노란 병아리의 솜털 같은 햇살이 개나리 울타리 사이로 기어 들어와 엄동설한 긴긴밤과 무더위 비바람 폭풍을 견디어낸 빗살문 찌든 창호지에 불을 부비고 있을 때면 앞으로 닥쳐올 동장군을 막아낼 집 단장을 한다.

지붕의 끝은 선 끝이 하늘로 날아 오를듯한 기와집은 절간의 대웅전에

꽃살문이나, 여염집 대청덧문도 쌍바라지 미닫이 빗살문에서부터 크고 작은 문과 창문까지 많기도 하고, 초가집은 장독소래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 같이 포근한 곡선에 정이 담긴 지붕 아래 소박하게 달린 안방문과 윗방 사랑방문이 걸친 옷도 모두 창조지다. 문짝과 창문을 떼어내 햇빛 고루 널린 앞마당에 가지런히 모아 세우고, 빛바래고 누런 창호지를 깨끗이 뜯어내고, 한지에 풀을 매겨 새로 바

우리네 조상님들은 문과 창문에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로 곱게 발라 멋과 실속을 함께 하며 긴 역사와 삶을 누려 왔었다.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은 편리를 극대화하는 변화 속에 한옥이 줄어들고 서구화된 양옥과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며 모든 문과 창문은 단단한 유리로 막아져 이웃을 단절시켜 놓고 있다. 투명한 유리의 완전노출이 아니면 불투명유리 장막으로 바람 한 점

싸락눈 내리는 소리가 임의 발자국 소리 같아 마음 설레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동장군 칼바람 휘몰아쳐 문풍지 서럽게 울리는 소리에 사람 그리움도 살갓게 느끼며, 내 집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행복감에 더없이 가슴 따듯하였다.

불 켜진 방안에 다정한 가족들의 그림자가 비춰 행복하게 보이고, 도란도란 말소리도 고즈넉하게 들려와 정감을 느끼게 하던 이웃의 풍경이다. 대문 앞에서 큰기침만 두어 번 하여도 알아차리고 반기던 우리네가 아니던가, 지금에 생각하니 이게 다 한지로 문창호 바르고 살았던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흔레 치룬 첫날밤, 신방을 훑쳐보려는 젊은 여인들이 손가락 끝에 침 발라 뚫어놓고 들여다보는 짓궂고 해학적인 장난도 먼 옛날얘기가 되었다.

빗살문 촘촘한 쌍바라지 문에 어른거리는 달그림자 벗삼아 담돌 밑에서 울어대는 가을풀벌레 노래 소리를 밤새워 듣고 싶다. 밖에 찬바람을 살짝 바꾸어 온화한 공기로 받아들여 놓는 한지의 멋을 잊어 가는 세월에...

문창호지

르면, 갈바람에 창호지는 어느 곁에 마르고 곱디 고운 마음 같은 순백의 한지는 팽팽하게 당겨지며 미음자 시옷자 꽃살문 빗살문이 곱게 입었다.

거기에다 더 멋지게 치장하는 것이 있으니 사람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동그란 문고리가 매달린 부분에 여린 풀잎에 맨드라미꽃을 뜯어 넣어 꽃피우고, 행복의 클로버 잎 또는 코스모스꽃 등으로 그림을 만들고, 그 위에 예쁘게 오린 한지를 덧바르면 한 폭의 자연생화그림 액자가 된다.

소음 한 줌도 허용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고독을 질근질근 씹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싶다.

더구나 안에서는 밖을 흰하게 바라볼 수 있으나 밖에서 안은 보이지 않는 가증스런 유리창을 우리는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지난날 우리네 문과 창문은 한지로 발라서 유랑하는 나그네바람의 녀두리도 간간히 들을 수 있었고, 이슬비 종알대는 소리 컷가에 담아보기도 하고,

생활칼럼

노천리 가는 길

며칠전, 영귀미면 노천리에 이불빨래 배달을 다녀왔다. 영귀미면(詠歸美面)은 “노래 부르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온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흥천현 영귀미면이었다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동면으로 바꿨으나, 2021년 6월1일을 기해 주민의 뜻을 모아 원래 이름인 “영귀미면”을 되찾았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털어내고 아름다운 우리 지명을 되찾은 지역주민의 뜻을 높이 사고 싶다. 공작산, 오성산, 오룡산, 남산, 오음산, 만대산, 대의산, 발교산 등 아기자기한 산들로 둘러싸인 영귀미면은 이름만큼이나 저절로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정겨운 풍광을 품고 있다.

읍내를 벗어나 오룡산터널 앞에 다다르니 마치 무릉도원의 관문을 들어서는 듯한 흥분이 살짝 느껴진다.



터널을 빠져 나와 444번 지방도를 따라 내달리니 어느 곁에 봄바람에 팔랑이던 연녹색의 상큼한 새싹들이 봄의 기운을 벗어

던지고 질푸른 녹음으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요즘은 이상기온 탓인지 겨우내 움츠렸던 추위를 이기고, 봄의 포근함을 느긋하게 즐기기도 전에 바로 여름으로 들어서는 조급함을 보이는 것 같다. 속초 저수



지를 끼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서니 노천리 이정표가 보인다.

잠시 후 30km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나타나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는데 보기에 예사스럽지 않은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노천초등학교 보안관실”이라는 안내판이 보여 초등학교인가 보다 했는데, 리 단위 지역에 이렇게 큰 규모와 훌륭한 건물의 초등학교가 있다는 게 매우 놀라웠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잠시 틈을 내어 검색해 보니 역시 예사롭지 않은 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최초 공립 대안초등학교라고 한다. 요즘 같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새싹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다는 교육과정이 참 부럽다.

나도 어릴 적에 답답한 학교교육을 불편하게 느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노천삼거리에서 406번 지방도 갈림길에서 공작산을 끼고 돌아 들었다. 잠시 후에 오늘 내가 방문해야 하는 곳. 그 근처에 도착하여 어른신이 맥에 계신지 확인전화를 드렸다. 산기슭에 서너 가구만이 모여 사는 조용한 동네이다. 어제 가지고 갔는데 벌써 가지고 왔느냐고 반기며 마당으로 허둥지둥 나오셨다.

예전 같지 않아 무거운 이불빨래를 하는 것이 힘에 부쳤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 고맙다고 몇 번이나 되뇌인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신다고 한다. 할머니뿐이 아니고 동네근처에 인적이 없어 보인다.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어 모두들 밖으로 나갔기 때문일 거라고 마음속으로 위로해 본다.



예정된 배달 건이 남아 있어 안부인사를 여쭙고 자리를 뜨려 하니, 이렇게 먼 곳까지와 주었는데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한사코 끌어당기신다.

누구의 방문이라도 반가운 산촌 생활의 적적해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 자신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라 혹시나 취약하신 어른신들 걱정도 되고 하여 머물기가 몹시 조심스럽다.

잠시 서서 어른신의 일상적인 얘기들을 들어주고 집을 나서려는데 어느 곁에 드링크 한 병을 손에 쥐어 주신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드리고 뒤돌아 나오는 마음 한 편이 팬스레 무겁다.

박호관 기자(hokwan-park@daum.net)

공작산 수타사 풍경 스케치

부처님 오신날

수타사는 708(신라 성덕왕7)년 원효스님이 창건하여 우적산 일월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8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본래 '석가 탄신일'로 칭하였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진출처 : 공작산 수타사 종무소

“然燈(연등)”

등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것은 자신을 무아로 돌린다는 것이다. 자신을 철저히 죽여 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어 구하는 빛이다.

자신을 태워 밝힌다는 의미에서의 然燈(연등)이다.



사진출처 : 춘고학회 카페/시골맘 일상블로그

“供養(공양)”

우리나라에서의 사찰에서는 식사를 하는 것을 “공양한다”고 하며 식사시간을 공양시간이라고도 한다.

이 때의 공양은 누군가가 공양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서 施恩(시은)을 잊지 않게 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대중공양에서는 반드시 施恩(시은)을 상기시키는 의식을 행하게 된다.



사진출처 : 홍천군노인복지관

평생 학습

어반스케치

홍천군 평생 동안 배우는 “평생학습” 2탄 어반스케치

홍천군청에서는 매년 3월~12월까지 주 1회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 1인 1취미 갖기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차로 진행되는 20여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반스케치에 대해 소개한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업 받는 도중 폐강되는 일도 발생하였으나 올해는 예정대로 매주 목요일 10시~12시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박강미 강사의 지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반스케치(Urban sketching)는 줄여서 USK라고도 하는 용어로 화가이자 기자인 가브리엘 캄파나리오가 2007년에 출범한 “국제미술운동”이다.

어반스케치는 풍경화라고 정의하고 여행길에 잠깐 담고 싶은 풍경을 빠르게 그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며 내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야외에서 도시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리는 스타일을 말하며, 때로는 실내에서 내부 모습이나 소품들을 그리는 작업이다.

또한 일상 속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완성할 수 있고 여행 그림일기, 여행 드로잉, 어반 드로잉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도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연필이나 펜, 스케치북만 있으면 세상을 관찰하고, 보고, 기록하는 그림으로 일반 화가들의 그림과는 다른 정교한 그림이나 세밀화가 아닌 자신이 본 도시의 모습이나 여행에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 보이는 감성들을 옮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어반스케치는 기초적인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선의 사용이나 구도, 색감 등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



◇어반스케치 수업 모습과 작품.

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고 박강미 강사는 전했다.

준비물은 수채화 물감, 수채화 붓,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과 함께 여행가서 그려 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는 방법은 연필이나 펜으로 구도를 잡고 아이 레벨과 소실점을 찾아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 연필로 제일 큰 선을 그은 후 옆의 가로 세로 작은 선들도 이어준다. 점점 많은 선들을 긋다 보면 건물이 생기고 창문이 생긴다. 멀리서 그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며, 선을 생략해서 그린다. 선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므로 채색은 물감의 농도를 열게 하여 큰 면적을 그린 후 명암을 나타낸다. 어두운 부분을 물감 농도를 짙게 하여 채색한다.

간단하지만 모든 세상의 이치는 경험과 노력으로 이루어

어지는 것이 분명하고 순간의 감정을 잊지 않고 그리려면 그림에 대한 열정 플러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요즈음의 어반스케치는 초반에는 인기있는 사진으로 스케치를 하다가 블로그와 SNS를 통해 빠르게 전세계에 퍼져 나가는 추세이고, 어반스케치 모임 단체를 통해 야외 스케치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와 소풍삼아 나가서 한가하게 풍경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취재 갔을 때 모인 학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신분은 72세의 열정 만학도도 있었고, 60대 초반의 서석면에서는 문윤옥님은 남편이 먼저 5년전에 홍천에 귀촌하여 기반을 닦은 후 3년 전에 홍천으로 완전 이주하여 평소 관심 있었던 그림에 올해 어반스케치라는 프로그램으로 미술을 시작한 분으로, 서석면에서 매주 1회 아내바다 장터를 열어 봉사 활동 및 환경 운동도 하시고 수익금은 그린피스와 난민을 돕는데 전액 기부하는 봉사 정신으로 귀촌 생활을 즐기는 분도 있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였으나, 날씨 쾌청한 날 학습 동아리 회원들과 야외 스케치도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마음만 있으면 시골에 귀농·귀촌하여도 도시 생활 못지 않게 제대로 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고, 양질의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놀이터 “홍천”이 좋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